

# 업계 동정

## ● (주)도드람B&F, (주)도드람BT

### 대표이사 변경

(주)도드람B&F와 (주)도드람BT의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3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대표이사: 지원철→최상렬(2개사 동일 대표)

## ● 희망(주)

### 서울사료(주)에 합병

희망(주) 경산공장 및 경주공장이 지난 3월 14일부로 서울사료(주)로 합병되어 서울사료 경산공장, 경주공장으로 변경됐다.

## ● 씨케이에프 사료제조(주)

###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씨케이에프사료제조(주)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일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상호: 씨케이에프사료제조(주)→에스와이사료(주)  
△대표이사: 박형→김도우

## ● (주)에스씨에프

### 대표이사 변경

(주)에스씨에프는 지난 3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에 이창식씨를 선임했다.  
△대표이사: 이창식  
△회장: 이희상(현 한국동아제분 회장)  
△부회장: 김정인(전 에스씨에프 대표이사)

## ●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 우수농장의 날 행사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지난 3월 28, 29일 퓨리나 21지구 양돈 대군사양가 회의와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우수 사양가들의 생산성 향상 노하우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 28일 충남도고의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양돈 대군사양가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연속 MSY(모돈당 연간 출하두수) 21마리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논산의 성원중축(대표 조용찬)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 농장은 모돈 600마리 규모로 철저한 기록과 매월 퓨리나와 함께 정기적인 농장회의를 통해 직원 교육과 성적관리를 해 오면서 높은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금산의 우리농장(대표 김완구) 역시 240마리의 모돈 규모에서 퓨리나사료팀과 연계된 후 출하마리수가 월 평균 100마리씩 증가, MSY도 16마리에서 21.2마리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삼릉농장(대표 최정태) 역시 197마리의 모돈 규모로 지난해 MSY 22.4마리를 달성, 높은 수익성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용순 영업이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장의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소모성 질병에 대한 해결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3월 29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우수농장의 날’에서는 MSY 22.8마리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축산(대표 이상용) 사례가 소개됐다.

국민축산은 2000년 당시 모돈 600마리로 시작해 현재는 1100여마리를 사육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곳으로 분만율이 9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돈경영전략 · 70일령 콘테스트 개시회의

동사는 지난 3월 14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퓨리나 양돈경영전략 및 70일령 콘테스트 개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에 처한 한국 양돈산업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농장의 경영전략과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김대규 양돈특판부장은 ‘국내 양돈시장 상황 및 경영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양돈산업이 돈육수입 급증, 미산쇠고기 수입재개, FTA체결 등 외부적인 악재와 각종 소모성 질병 피해로 폐

# 업계 동정

사율이 30%를 넘고 있다”며 “생산성 회복을 통한 국제 경쟁력 회복만이 한국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일과 건강’ 김선경 대표는 ‘환경과 질병’ 강의에서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는 집단 질병의 관점에서 효과가 한계가 있다”며 “질병을 질병으로 보지 말고 환경과 위생관리, 영양에 보다 집중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주)두산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주)두산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지난 4월 3일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상호 : (주)두산식품부천공장 → (주)두산 부천공장

△대표이사 : 유병택 → 강태순

### 농장 청정화 캠페인

(주)두산 백두사료는 최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청정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두산백두사료는 우선 공장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등 ‘5S’ 활동을 강화하고 공장 하치장 소독강화, 벌크차량 세차 및 청결유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환절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강사료 공급을 시작했다.

또 사양가를 위한 농장방역 활동과 자체방역 소독차량을 가동 중이다.

## ● 대한사료공업(주)

### 신제품 'SCA 트랜스 라이트' 출시

대한사료공업(주)이 최근 자돈 소모성 질병에 효과가 큰 신제품 'SCA 트랜스 라이트'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자돈의 면역능력이 떨어져 폐사율이 가장 높은 기간인 56~80일령을 타킷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소화율을 높였으며 고급 단백질과 영국사료회사인 SCA사로부터 공급되는 특수 첨가제를 사용했다.

또 면역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비율을 강화해 면역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며 복합 유기산제를 투입, 급격히 소진된 자돈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식물에서 추출한 기능성 물질인 에센셜 오일을 가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는 능력과 혈액의 순환 속도를 증가시키고 소화장기를 보호해 소화기 및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장지훈 마케팅팀 과장은 "SCA 트랜스 라이트는 원료부터 차별화된 고급질 사료로 자돈의 면역력을 보강시켜 폐사율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 ● (주)우성사료

### 양돈 사양가 세미나 개최

#### 위기의 양돈업을 살리자!

#### 우성사료 "피그팜5대 솔루션" 큰 호응

(주)우성사료 지난 3월 27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이천을 비롯한 인근지역 양돈사양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위기의 양돈업을 살리자"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 우성은 그 대안으로 [우성 피그팜 5대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돼지의 건강을 단순히 질병적인 요인이나 영양적인 요인 또는 사양관리적인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처리하여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요즘 양돈 현장에서는 단순히 어느 첨가제 또는 항생제의 사용이나 시설변경, 사료변화 등으로 양돈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가 더러보인다. [피그팜 5대 솔루션]은

# 업계 동정

영양, 시설 사양관리, 질병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더욱 현장 중심적인 활동 전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우성사료의 강력한 전문 서비스 조직이 제공하는 모돈 BCS 관리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모돈 BCS 관리 솔루션은 전문측정장비를 이용한 등지방 정밀측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모돈 BCS관리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정밀한 사료급여프로그램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성사료 박종현 양돈대군지원부장은 지난 15년간 우리의 종돈 환경과 영양, 시설, 질병 등은 많이 변해 왔지만 그에 따른 모돈 사료급여관리 방법은 별다르게 바뀐 것이 없는 현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우성사료의 모돈 영양관리 신기술과 서비스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을 확신하였다. 또한 농장 돼지건강의 기본은 모돈의 건강이며 모돈 건강의 기본은 최적의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이기에 더 없이 중요한 대목이다.

우성양행 손신균 수의사는 모돈 면역체계의 교란과 이에 따른 생산성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모돈의 소화기 장관 면역체계를 정상화 시키는 우성사료만의 “모돈 면역회복 90일 작전”을 소개하고 참석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노텍 모돈사료의 장관 면역기능 활성화 기능과 사료 원료구성의 합리성은 타사료와 큰 차별이 됨을 강조하였다.

김재형 양돈PM은 이날 행사에서 성공적인 우성사료의 환기컨설팅 사례와 환기관리 방안을 소개하며, 환기컨설팅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컨설팅도 단순 유행 또는 성공사례 접목에 그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성 “피그팜 5대 솔루션”은 종합적인 해결방안의 차원이므로 단순히 환기시설만 개선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보지 말기를 당부했다.

우성사료는 사료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CPT공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 했으며 이 기술을 이노텍 사료에 접목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 기술제휴를 통한 최신 기술 도입 등으로 사료의 품질과 영양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바 이번 “피그팜 5대 솔루션”의 확산은 사료제품과 서비스의 완벽한 조화로 평가되고 있다.

우성사료는 “이노텍 사료”와 “피그팜 5대 솔루션”을 통하여 더욱 현장중심적이고 더욱 실질적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게 되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폐사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CJ(주)

### UCC사료마케팅 최초 실시

씨제이가 UCC를 이용한 마케팅을 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씨제이는 최근 사원간의 동료애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제작했다.

씨제이는 이를 통해 '돈돈스텝' '아미노텍' 등 사료 제품을 부각시킴으로써 업계 최초로 UCC를 활용한 마케팅을 도입,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씨제이는 이 UCC를 그룹 UCC 공모전에 제출하는 한편 씨제이 사료영업 행사에서 활용하고 UCC사이트에도 게재할 예정으로 UCC를 이용한 마케팅이 사료업계에 보급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 영업사원 대상 무선인터넷 모뎀 지급

동사 사료BU는 최근 외근 업무가 대부분인 영업사원들에게 무선인터넷 모뎀을 지급했다. 무선인터넷모뎀은 무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CJ측은 "이번에 무선인터넷 모뎀을 지급한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현장에서 언제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료BU, 세일즈 스쿨 열어

동사 사료BU(부사장 이병하)가 영업력을 보강하기 위한 세일즈 스쿨<사잔>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세일즈 스쿨은 CJ의 영업사원과 지점장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 영업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영업기법 등을 전수하고 있다.

또 영업시 필요한 사양가회의 프리젠테이션과 시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



# 업계 동정

## ● (주)선진

### (주)경축과 기술 협력 조인식

(주)선진이 지난 3월 23일 (주)경축과 기술협력 조인식을 갖고 그동안 쌓아온 갓난 돼지·모돈 사료 등을 포함한 고품질 양돈사료 생산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판매량을 영남지역으로 확대했다.<사진>

이번 기술협력 조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홍 생산물류담당은 “산란계 사료중심의 (주)경축에게는 우수한 양돈



사료 생산기술의 노하우가 전수되고 (주)선진은 영남지역의 양돈농가들에게 원활한 사료를 공급하는 상호 윈윈체계가 구축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천 선진공장의 설비 등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만큼의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실사를 거쳐 시설을 완비했다”면서 “특히 (주) 경축도 사료공장 HACCP를 이미 획득한 상태여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양사의 협력에 의해 영남지역으로 판매되는 양돈사료는 제조원은 경축이, 판매는 선진사료로 양돈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천 지역에서 경축의 사료를 원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선진에서 경축의 사료와 연결시켜줄 예정이어서 최근 사료업체들의 ‘합종연횡’ 움직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품질 대폭 보강 모돈사료, ‘헤라’ 신제품 출시

(주)선진은 최근 품질력을 대폭보강한 모돈사료 신제품 ‘헤라’를 출시했다.

네덜란드 핸드릭스UTD사와 기술제휴해 3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된 이 상품은 연간 모돈마리당 출하 마리수(MSY)를 현재보다 5마리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헤라 포유돈, 헤라 임신돈 등 총 7단계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이 상품은 복단위가 커지면서 태아당 체중이 작아지고 과거보다 균일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모돈의 상태에 맞게 설계돼 있다고 선진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태반 영양공급 강화로 배아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능성 아미노산 공급으

로 태반 발달을 촉진, 태아영양공급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 식이 섬유 공급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모돈의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했으며 배아에 영양물질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비타민과 특수 광물질을 투입했다.

최정기 과장(양돈PM)은 “자돈폐사의 주 원인은 부실한 모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헤라’ 신제품은 모돈을 강건하게 만들어 폐사율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